

차량부식관련 보수요청

1)귀사의 발전을 기원합니다.

2)기아차감사실민원제기('12.02.18: 차량외부도장이 부풀어오르고 있어요)건입니다.

3)귀사에 민원제기후 담당자를 만났는데 몇가지 의문이 생겼습니다.

첫째, 기아차담당자는 "차량부식관련은 회사의 책임이 없으며 민원인 차량관리 소홀로 발생했다"라고 사전에 결정을 내린듯이 민원인 저에게 그 결정사항을 확인시키려고 한점.

둘째, 최초담당자(이기훈 왜관A/S)와 2곳(구미 기아정비소,대구기아정비소)을 다녀왔는데 최초담당자의 명확하지않은 심증으로 이야기한것을 다음사람은 그것에 초점을 맞추어 문제를 확대시키고 만들어가는것.

(하나의 예시로 최초담당자가 차량라이트가 차량생산연도와 맞지 않은것 같다(실제로는 아님 타차량도 내차량과 동일)고 하니까 점검하는사람은 그곳을 중심으로 차량 사고 발생한것 같다고 의문제기해서 그럼 그곳의도장을 벗기고 확인하라고 하니까 차량강판이 약해져서 재도장이 어렵다고 회피함 -그럼 동일차종으로 사고나서 정비소에 들어가서 도장하는 차량은 없겠내요? 애들도 아니고 확연히 들어날 이런 말장난으로 민원인을 대하는것은 무책임하고 회피성 행동 아닙니까?)

셋째, 저와 운행기간이 비슷한 동종 및 타사의 차량에 비해 부분적으로 차량부식이 심하다는것을 소비자 관리소홀로 넘기지전에 생산시 차량 강판 및 도장부분의 결함일수도 있는데, 이모든것을 차량도장 A/S기간이 지났다는등, 차량관리 소홀이다는등...소비자쪽으로 몰아가고 있습니다.

4) 이렇듯 보험사나 직접확인해서 사고 증거를 밝히면 되는데 그것을 회피하고 은폐해서 물증이 없는 자기들 심증으로 민원건을 종료하려는것은 현실과 맞지 않은것 같습니다.

5) 세계화를 추진하는 대기업에서 이렇듯 말장난으로 민원건을 회피하고 덮으려고 하는 행위가 글로벌경영,윤리경영의 방침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게해서 어떻게 외국차량과 동등한경쟁을 할수 있겠습니까?

언제까지 국민의식중 국산차가 다그렇지하는 생각을 버릴수 있을까요?

아무썽, 명확하고 현명한 판단으로 선처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사이버감사실 | 처리결과 확인

[Home](#) > [사이버감사실](#) > [처리결과 확인](#)

제보제목	차량 외부도장에 녹이 씌어 부풀어 올라오고 있습니다.				
번호	1	제보날짜	2012-02-18 오전 9:05:00	처리상황	처리완료
내용	<p>카니발2 소유자입니다.5~6년전부터 차량외부표면이 조금씩 녹이 보이고 부풀어 오르더니 현재 동전크기 3~4개는 됩니다.외상은 전혀 없구요.</p> <p>정비소나 AVS에 문의해도 자기책임이 아니라고 하고 ,그럼 차량구매이후 애매한문제는 본인들이 직접 문제를 찾아서 해결하라는 이야기인가요? 차량이 10년되면 외부표면이 막 부풀어 올라도 되는가요? 이야기 할것은 많지만 오늘은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p> <p>그나저나,살기 어려운세상 가진자의 권위/권력을 내세우기보다 없는자에 대한 배려다 생각하시고 다시한번 확인 조치 부탁드립니다.</p>				